아타라기 엔스케 《두 사람의 비밀》의 당신 시선 메모입니다.
녹음 데이터 시청 후 읽어주세요.

※당신이 정말로 '사진찍기'에 빠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릅니다.
→ 선택지 A
[그렇지 않다]
성실한 누나분은 이대로 읽어주세요.

→ 선택지 B
[그럴지도 모른다]
완전히 야해진 누나분은 동봉된 《memo_B》를 읽어주세요.

■선택지 A [성실한 누나]

회사 근처 큰 공원.
심플한 천으로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통을 무릎에 얹은 채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있는 당신.

『──그보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감시 중이지?』
누나인 당신을 책망하듯 낮아진 목소리와 달리 스마트폰 작은 화면에 비치는 엔스케의 입가는 즐겁게 웃고 있다.

일의 발단은 얼마 전에 집에 가지고 온 '인형'
프레젠테이션용 시제품으로서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동생인 엔스케가 모델이다.
불타는 듯이 깊은 빨간색이나 빛에 비치는 연한 핑크…….
아침 노을처럼 변해가는 엔스케의 머리색을 좋아하는 당신.
인형의 머리는 딱 중간 정도의 색조로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침대 머리맡에 장식하고 있었다.
이 '인형'에는 실용적인 기능도 있다.
초소형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어 언제든지 촬영&녹화가 가능.
라이브 카메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혼자 보내는 점심시간.
왠지 모르게 무료해져서…… 이유 없이 동작 확인을 해봤을 뿐이었다.
진심으로 들여다볼 생각 없었다.
『누나』라며 자신을 부르는 애틋한 목소리를 들으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한숨이 새어 나올 때마다 오르내리는 목젖이 요염했다.
동생한테 이런 감정을 품다니…….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금세 달콤한 쾌감을 떠올리며 뱃속이 찡하고 욱신거리는 감각이 느껴졌다.

『혹시 중독됐어? 사진 찍는 거……♡』

그런 말도 안되는 누명을 쓰고도
동생의 행위를 들여다본 죄책감 때문인지 반론도 못하고.
(들여다본 것은 자신의 방이고, 오히려 주인이 없는 침대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에도)
누나의 성실한 성격을 잘 파고드는 동생과
동생의 놀림을 받아 눈물짓는 당신.
그런 당신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듯하면서도 어리광을 받아주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이는 엔스케.
『사랑해』

얼마 전까지 '가족'으로서 귀여워해온 동생의 사랑 고백에 귀가 뜨거워진다.
'누나'로서 완고하게 지켜온 방패는 그날 엔스케에게 억지로 열려버렸고, 이미 거의 빠져버렸다는 것을 당신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니저러니해도 잘 어울리는 두 사람.
귀가 후 아침까지 '벌'을 잘 즐겼다고 합니다 ♡